**살전0523 Note**

**◆사람은 혼을 가지고 육신에 사는 영입니다 / 케네스 해긴**

(두서없이 편집,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느낌은 몸의 소리입니다**

고후050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음이라)

이성은 당신의 혼, 곧 정신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당신의 영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의 소리에 따라 행하고, 육신의 소리에 따라 행하지 않노라>고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mind)과 육신의 감각으로 이 세상과 접촉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곧 육체적 감각으로 사는 것이요, 이는 곧 울타리를 쳐서 생명의 하나님을 울 밖으로 몰아내고 울안으로는 자연인들과, 질병과 마귀들을 영접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감각의 영역, 환경의 영역에 잡아두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면 우리가 마귀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관한 말씀**

1)영과 혼과 몸 spirit and soul and body

Ω살전0523. 그러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면적으로(전부) 성별시키시느니라 (따로 떼어 놓으시느니라)[하기아조:거룩하게 하다,성별(聖別)하다,깨끗하게 하다,숭배하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영[프뉴마:프네오(숨쉬다)에서 유래,공기의 흐름,숨,바람,미풍,영(靈),생동하는 원리,정신적 기질,천사,마귀,하나님,성령]과 혼[프쉬케:프쉬코(호흡하다)에서 유래,호흡,영,목숨,마음,영혼,생명/유사어:프뉴마,조에]과 몸[쏘마:(건강한 총체로서)신체,육적으로,종(種),몸,시체] 그 전부가 탓할 데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니라.

나의 영으로 나는 영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나의 혼으로 나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나의 육으로 나는 육신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2)겉사람, 속사람, 혼과 영

Ω고후0416.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생기를 잃지(엑카케오: 나쁘게 되다,약하게 되다,실망시키다,활기를 잃다,피곤하다) 않느니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할지라도,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새로워지느니라.

Ω히0412. 이는 하나님의 말씀[로고스: 말해진 어떤 것, 주제,논의의 제목,논의,신의 현현, 말씀,관계하는 것,진술,연설,관계된 것,계산,교통,말씀,교리,명예,의도,문제,입,설교,도(道)]은 살아있고(자오:살다,생,생기있는,살아있는) 세력이 있으며(에네르게마:활동적인,움직이는,효과적인,능력있는), 양 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심지어 따로(두 동강이로) 나누기까지, 또 관절(하르모스:관절,접합)들과 골수(뮈엘로스:골수)를 따로(두 동강이로) 나누기까지 꿰뚫어 보며(간파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는(크리티코스:결정하는,비판적인,구별하는,식별하는) 자이심이라.

3)삶의 2가지-영으로 살기, 육신 안에서 살기

Ω빌0121. 이는 내게 있어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이 이득이 됨이라.

빌0122.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내 수고(에르곤: 노역,행위, 수고,일)의 열매(카르포스: 과실,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중간태)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빌0123. 이는 떠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둘 사이의 해협(좁은 틈) 사이에 처해 있음이니(쉬네코:함께 잡다,막다,체포하다,강요하다,곤경에 빠뜨리다,괴롭히다,미리 점유하다,억제하다,붙잡다,지키다,억압하다,누워 앓다,멈추다,모이다), 그것이 훨씬 나으니라.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물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4)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품행(아나스트로페:품행,처신,행위,대화)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은 기만적인(아파네:현혹,기만적,속일 수 있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5)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시험은 어디서 오나요?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새로워 지지 않은 본성의 욕정입니다.

Ω약0112. 시험을 견디어 내는 자는 복되니라(마카리오스:최고의 축복,행운의,복된,축복된,행복한), 이는 그가 시험 받는(도키모스:받을 만한,시험받은,시험후 인정된,연단된) 때에, 그가 생명의 관(冠)을 받음이라. 그것을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느니라.

Ω약0113. 사람이 시험 받는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시험 받느니라"고 아무도 말하게 허용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은 악(惡)으로써 시험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그분은 아무도 시험하시지도 않으심이라.

약0114. 대신에 낱낱의 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피뒤미아:(특히 금지된 것의)동경,정욕,욕망,갈망]에 의해 이끌려지고 유인되는 때에 시험 받느니라.

**◇사람은 혼을 가지고 육신에 사는 영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의 영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들이 마귀에게 허락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홈과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속사람 영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릅니다. 마귀는 그들의 혼과 몸은

물론, 그들이 허락하면 그들의 영에도 들어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은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 혼, 몸이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되면, 마귀는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 영 (spirit, the heart)**

1.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영입니다 /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 진짜 당신인 당신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의 영에 귀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영속에는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마귀와 같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Ω살전0523. 그러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면적으로(전부) 성별시키시느니라 (따로 떼어 놓으시느니라)[하기아조:거룩하게 하다,성별(聖別)하다,깨끗하게 하다,숭배하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영[프뉴마:프네오(숨쉬다)에서 유래,공기의 흐름,숨,바람,미풍,영(靈),생동하는 원리,정신적 기질,천사,마귀,하나님,성령]과 혼[프쉬케:프쉬코(호흡하다)에서 유래,호흡,영,목숨,마음,영혼,생명/유사어:프뉴마,조에]과 몸[쏘마:(건강한 총체로서)신체,육적으로,종(種),몸,시체] 그 전부가 탓할 데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은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사실상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의 한 부분이 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입니다.

그 영, 그 사람이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의 영은 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음행을 저지르면, 그것은 당신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의 몸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한 것이지, 당신의 몸 스스로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영)이 당신의 집(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2.거듭남과 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의 영에 귀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영속에는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당신의 영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거듭난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귀와 같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3.영의 사람, 속사람에 대한 말씀들

Ω1요0309.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누구든지 죄(빗나감)를 저지르지 않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음이라,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남이라.

이 본문은 속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잘못을 행하는 본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 많은 과실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게 동의한 적조차 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썼으며,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심령은 울었습니다.

잠2027. 사람의 영(느샤마,느솨마:훅 불기,바람,거친,생명의 호흡,신적 영감,짐승,돌풍,숨 쉬는 것,영,영혼)은, 복부(베텐:배,몸,태,자궁,어떤 것의 가슴이나 몸체,내부에)의 모든 내부의 부분들을 샅샅이 뒤지는 여호와의 촛불(니르: 등불,점화기,빛,촛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 즉 주님의 촛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1828. 이는 주께서 촛불을 켜실 것임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에 빛을 비추실 것이니이다.

Ω요0737. 마지막 날에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니라, 이르시되, 만약 누가 목마르면, 그로 내게 와서, 마시게 하라.

요0738. 성구(聖句)가 말했던 것과 같이, 내 위에서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흐르느니라.

요0739. (그러나 그분 위에서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에 관해, 그분께서 이를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이니,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음이라)

위의 두 말씀을 살피어 보건데, 특히 성령이 계신 곳을 생각할 때 belly는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온 것이었습니다

4.영의 사람, 속사람, 영의 세계에 대한 잘못된 접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영, 영에 세계에 대하여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에 대한 문제를 믿지 않는, 영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의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가 치료하려고 하거나 다루려고 하거나, 기타 자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치료하기는 커녕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의식 밑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어내어, 이를 잠재의식이라고 하며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재의식에 대하여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의 활동인 지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고전0212.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靈)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속하는 영(靈)을 받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0213. 그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견주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서 우리가 또한 말하고 있느니라.

Ω고전0214. 그러나 자연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靈)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전0215.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아나크리노:자세히 조사하다,심문하다,결정하다,묻다,구별하다,판단하다,찾다), 그럼에도 그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빌0407. 그러면 온갖 이해(누스:지능,마음,의미,이해)를 뛰어넘는(휘페레코: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다,능가하다,위에 있는,뛰어난,고상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느니라.

5.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4단계<케네스 해긴>

1)말씀을 묵상하자.

2)말씀을 실천하자.

3)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자.

4)나의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자

항상 부드럽고 민감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무감각하게 되거나, 화인을 맞게 되면 주님의 계획과 인도를 분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분별하여 그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환경에 따라 인도받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성도의 수, 헌금등)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도 준수합니다.

나는 내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현재의 길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일치하려는 노력도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잠1522. 조언이 없으면, 의도[마하솨바:고안(考案),직물,기계,의향,계획,공교한 (일),기묘한 일,고안해낸,상상력,발명된,수단,목적,생각]들이 좌절되나(파라르:분쇄하다,어기다,좌절시키다,어떻게든,산산이 깨뜨리다,그만두게 하다,쳐부수다,취소하다,실망하다,해체하다,실패하다,좌절하다,무로 돌리다,전적으로,무효로 하다), 많은 조언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공고히 되느니라 (쿰:일어나다,지탱하다,성취하다,확고해지다,계속하다,유지하다,제정하다,키우다,세우다,착수하다,공고히 하다,설립하다,강하게 하다,성취하다,확실히 하다,떠받치다,들어올리는,포고하다).

당신의 결정으로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동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서도 그 음성을 주님의 인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6.네 육신을 항상 다스리도록 하라

그 때는 한 주에 이틀(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음식이나 물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며칠간 혹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는 대신, 금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며칠간 금식하고 나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대신 그냥 금식하는 삶을 살아라.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네가 금식하기 전이나 금식도중이나 금식한 후에도 나는 똑같단다. 금식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금식은 단지 네가 네 육신을 복종시켜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지 않도록 해라. 네 육신을 항상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모든 시간을 기도함으로 저녁예배 전에 네 자신을 기진하게 하지 말아라.

침대에 누워 묵상하여라"

7.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십시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에 우선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바르게 양육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우리의 거듭난 영,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우리 영은 강건해 지고, 우리의 바른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성령님을 통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의 영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당신의 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혼(soul, mind) ; 마음, 의지, 지성, 감정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마음, 의지, 감정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혼은 육체를 통해 작용합니다.

고전1414. 이는 만일 내가 알려지지 않은 말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나, 나의 이해력(누스: 지능,마음,의미,이해,이해력)은 열매가 없음이라,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의 영역은 나의 이해력, 인지력의 밖에 있는 것이며,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나의 혼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당신의 혼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접목된 빛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약0121. 그러므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부적당함(어긋남)을 치우고, 접붙여진 말씀을 온화함(유순함)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너희의 혼들을 구원(쏘조:구조,구원,보존,보호하다)할 수 있느니라.

Ω약0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 자신들을 속이는 단지 듣는 자들이 되지 말라.

▷ 당신의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것을 가려서, 조심해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의 양식이 되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

성경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할 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마귀를 쫒아 냄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혼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 (복원, 아나카이노시스:재생,회복,갱신,갱생)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살펴보다, 승인 찬성하다) 수 있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

성경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할 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마귀를 쫒아 냄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혼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당신의 혼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약0121. 그러므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부적당함(어긋남)을 치우고, 접붙여진 말씀을 온화함(유순함)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너희의 혼들을 구원(쏘조:구조,구원,보존,보호하다)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당신의 혼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구원 또는 회복은 마귀의 활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삶에서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악한 영을 쫒아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충만케함으로 마귀가 넘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0121. 그러므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부적당함(어긋남)을 치우고, 접붙여진 말씀을 온화함(유순함)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너희의 혼들을 구원(쏘조:구조,구원,보존,보호하다)할 수 있느니라.

Ω약0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 자신들을 속이는 단지 듣는 자들이 되지 말라.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접목된 빛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품행(아나스트로페:품행,처신,행위,대화)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기만적인(아파네:현혹,기만적,속일 수 있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어입니다.

목적어가 뭔가요? 사탄이 아니고 옛사람입니다.

당신이 악한 영을 다루는게 아니고, 당신의 몸을 다루는 것입니다.

엡0423. 그리고 너희 이해력(누스:지능,마음,의미,이해,이해력)의 영(靈)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아나네오오: 새롭게 하다,갱신하다,개혁하다,다시 새롭게 하다).

엡0424.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하나님을 좇아 '법적 깨끗함'과 참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몸과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빛 가운데로 행하여 사단을 향한 당신의 최고의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 (복원, 아나카이노시스:재생,회복,갱신,갱생)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살펴보다, 승인 찬성하다) 수 있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4.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요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 (복원, 아나카이노시스:재생,회복,갱신,갱생)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살펴보다, 승인 찬성하다) 수 있을 것이니라,

세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자기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교회에서, 주님은 나를 다루시어서 말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질병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하고

좌절을 생각하며, 실패를 생각합니다, 꼭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십시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명보다는 죽음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말들의 산물입니다.

잠1213. 사악한 자는 그의 입술의 범죄(페솨: 반역,죄,범죄,범하다)에 의해 덫에 잡히나, 적법한 자는 어려움에서 나오느니라.

잠1214. 사람은 그의 입(페:입,말,마음,말하다,소리,이야기하다,서원)의 열매에 의해 선(善)(타브:선한,좋은)으로써 만족되느니라(사바:만족시키다,충분히,충분하게 하다,충분히 채우다,충분하다,가득차다,물리게 하다,만족하다,자족하다,싫증나다). 그리고 사람 손들의 보상 (게물:대우,행동,봉사,보답,혜택,공적,당연한 상벌,그가 준,보수,보상)은 그에게 돌려지느니라(슈브:돌아가다,돌아오다,눕다,숙박하다,보내다,취하다,다시 가져오다,대답하다,다시 운반하다,다시 돌아오다,다시 불러오다,다시 얻다,다시 주다,다시 가다,지불하다,보답하다,회복하다,새롭게 하다,다시 갚다,보상하다,회복시키다,만회하다,돌이키다,물러나다).

잠1215. 바보의 길은 그 자신의 눈들 안에서 올바르니라. 그러나 조언에 경청하는 그는 지혜로우니라.

잠1216. 바보의 분노(카아쓰:괴롭힐,노,노한,슬픔,분개,화,자극하는,아픈,원한,진노)는 이내(욤:일출에서 일몰까지,일몰에서 일몰까지,날,날들,매일,언제든,잠시동안,그때) 알려지느니라, 그러나 신중한(아룸: 간사한,교활한,영리한,영악한)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카사:쿵 떨어지다,오목한 부분을 꽉 채우다,옷이나 비밀을 가리다,입다,단장하다,닫다,옷을 입다,숨기다,죄를 덮다,피하여 숨다,압도하다).

잠1217. 진실(에무나: 확고함,안전,신실함,신실성,안정성,믿음,확립된 직무,진실,꾸준한,진실로,참으로)을 말하는 그는 '법적 깨끗함'을 내보여주나, 거짓 증인은 속임(미르마:사기,재간,속이다,속이는,거짓의,꾸민,간사,교묘하게,배반)을 내보여주느니라.

잠1218. 검의 꿰찌름(마드카라:상처,찌름)들과 같이 말하는 이가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건강(마르페:치료법,약,치료,구출,평온,치료할 수 있는,고치다,건강한,건전한,완쾌하는)이니라.

잠1219. 진실된(에메트:안정성,확실함,진리,진실,확실한,확립,옳은,참된,참으로,신실한,분명한,진실로) 입술은 영원히 공고히 되느니라,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혀는 단지 잠시이니라.

잠1220. 악을 상상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속임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친(솰롬: 안전한,잘있는,행복한,정다운,안녕,건강,번창,평안,번영,친한,안부,호의,친구,인사,평화로운,쉬다,안전한,편안한,전적으로)의 조언자(야아쯔:충고하다,권면하다,조언하다,숙고하다,결심하다,공포하다,결정하다,궁리해내다,의도하다,조언자,모사)들에게 기쁨이 있느니라.

잠1221. 적법한 자에게 아무런 악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해악[라아: 나쁜,악한,역경,고난,재난,불쾌,걱정,사악한(사람,일),해,무거운,상처,해로운,비참,슬픈,슬픔,쓰라린,고생,짜증나게 하다,사악한,잘못된]으로 채워지느니라.

잠1222. 거짓말 하는 입술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나, 진실되게(에무나: 확고함,안전,신실함,신실성,안정성,믿음,확립된 직무,진실,꾸준한,진실로,참으로) 처신하는 (아사:행하다,전진하다,다루다,꾸미다,실시하다,실행하다,성취하다,제공하다,다스리다,주다,지키다,노동하다,유지하다,만들다,일으키다,수행하다,공급하다,섬기다,놓다,보다,일하다,쓰다) 그들은 그분의 기쁨이니라.

위의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과 치유가 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을 말합니다. 마귀의 일에는 나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패배나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의 능력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사람들이 담배로부터, 술 마시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은 걱정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걱정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환경의 상황을 보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내가 너를 넘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를 빙 돌아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뚫고 나가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웃는 동안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병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이것들보다 크십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천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찬양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230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곤궁하지 않느니라.

시2302. 그분께서 나를 초록의 목초지들에서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시2303. 그분께서 내 혼(魂)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분 이름을 위해서 그분께서 나를 '법적 깨끗함'의 길들 안에서 이끄시느니라,

희랍어의 <소생 해당어> ; 회복하다. 구하다. 재건하다. 새롭게 하다

우리의 영은 회복되거나 새로워 지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회복되고 새로워 지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의 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품행(아나스트로페:품행,처신,행위,대화)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기만적인(아파네:현혹,기만적,속일 수 있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엡0423. 그리고 너희 이해력(누스:지능,마음,의미,이해,이해력)의 영(靈)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아나네오오: 새롭게 하다,갱신하다,개혁하다,다시 새롭게 하다).

엡0424.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하나님을 좇아 '법적 깨끗함'과 참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몸과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빛 가운데로 행하여 사단을 향한 당신의 최고의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5. 구원받지 못한 혼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문제의 분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탓이라고 돌리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들의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감정이 빛 안에서 걷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안에서 걷기 때문

입니다. 구원 받기 전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함으로 그는 결국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이지, 귀신에 의해 생기는 일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믿는 자들의 주된 싸움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6. 혼 먹이기

1)우리의 혼과 육을 우리의 영에게 어느정도 복종케 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령에 민감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어느정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 될 것입니다.

2)우리의 영은 거듭나지만,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Ω고전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가지 신비(뮈스테리온: 비밀, 신비)를 보여주노니, 우리가 모두 잠 들지 않고, 대신에 마지막 나팔 때에, 순간에 곧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형되느니라(알랏쏘: 다르게 만들다,변경하다,변하다).

고전1552. 이는 나팔이 울리며,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게 일으켜지며, 또 우리가 변형됨이라.

우리는 육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육신과 늘 겨루어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롬0823.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양자삼아짐 즉 우리 몸의 되찾으심[아폴뤼트로씨스: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을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우리가 변화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아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오직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Ω고후0416.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생기를 잃지(엑카케오: 나쁘게 되다,약하게 되다,실망시키다,활기를 잃다,피곤하다) 않느니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할지라도,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새로워지느니라.

벧전0303. 너희의 꾸밈으로 하여금 머리를 땋고, 금을 착용하거나 또는 옷의 장식을 다는 것의 겉의 꾸밈이 되게 하지 말라,

벧전0304. 대신에 너희의 꾸밈으로 하여금, 썩지 않는 것으로, 온화(유순)하고 평온한 영(靈)의 바로 그 장신구로, 마음의 숨겨진 사람이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단한 값이 나가느니라.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 (복원, 아나카이노시스:재생,회복,갱신,갱생)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살펴보다, 승인 찬성하다) 수 있을 것이니라,

바울은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고전0926.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달리되, 분명치 않게가 아니며, 그렇게 내가 권투하되(퓌크튜오: 권투시합),허공을 연속 치는 자와 같지 않느니라,

고전0927. 대신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또 그것을 복종에로 데려가느니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난파당한(아도키모스: 공인되지 않은,거절된,가치없는,신에게 버림받은,시험에 합격치 못한) 자(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조차도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게 하기위해 자기 몸을 쳐야 했습니다.

7. 우리의 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1) 당신의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것을 가려서, 조심해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의 양식이 되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2)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

성경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할 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마귀를 쫒아 냄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혼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약0121. 그러므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부적당함(어긋남)을 치우고, 접붙여진 말씀을 온화함(유순함)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너희의 혼들을 구원(쏘조:구조,구원,보존,보호하다)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당신의 혼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Ω약0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 자신들을 속이는 단지 듣는 자들이 되지 말라.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접목된 빛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 (복원, 아나카이노시스:재생,회복,갱신,갱생)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살펴보다, 승인 찬성하다) 수 있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품행(아나스트로페:품행,처신,행위,대화)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기만적인(아파네:현혹,기만적,속일 수 있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어입니다.목적어가 뭔가요? 사탄이 아니고 옛사람입니다.

당신이 악한 영을 다루는게 아니고, 당신의 몸을 다루는 것입니다.

엡0423. 그리고 너희 이해력(누스:지능,마음,의미,이해,이해력)의 영(靈)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아나네오오: 새롭게 하다,갱신하다,개혁하다,다시 새롭게 하다).

엡0424.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하나님을 좇아 '법적 깨끗함'과 참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몸과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빛 가운데로 행하여 사단을 향한 당신의 최고의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발 앞에 엎디어,썬다 싱>

신자들이 종종 내 이름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매일 의 삶에서 그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고전1531.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기쁨을 걸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느니라,

죽기는 쉽고 살기는 어렵다. 그것은 신자의 생활은 나날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고자 준비하고 있는 자는 나의 영광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생활한다.

◇ 해긴목사

사람이 만일 그의 몸과 혼을 그의 영의 주관하에 두지 않는다면 모든 성령의 은사가 그의 삶에서 역사할지라도 아직도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Ω고전0301.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와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대신에 육신적인 자에게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와 똑같이 말했느니라.

고전0302. 내가 너희를 음식(고기)으로가 아니고 젖(우유)으로 먹였느니라,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었음이거니와, 지금도 아직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고전0303.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임이라, 너희 가운데에 시샘과 다툼과 나뉨이 있음으로,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또 사람들과 같이 걷지 않느냐?

**◇ 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거듭났다면 그의 영에 성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성령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좇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적의 공격에 그들 자신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1. 영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 즉 그의 몸에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생은 그 사람의 영에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에 죽지 않음의 약속을 줍니다.

Ω히0927.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이, 그후에는 심판이 지정되어(아포케이마이:보존되다,기다리다,지정되다,쌓아두다) 있는 것과 같이,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당신이 죽도록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9114. 이는 그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놓았음(쏟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져낼(팔라트:몰래 나오다,하다,구해주다,새끼를 낳다,안전하게 가지고 가다,구출하다) 것이니라, 내가 그를 높은 곳에 놓을 것이니라(사가브:높은 곳에 위치하다,도달할 수 없는,안전한,강한,수비하다,높이다,탁월하다,높다,높은 곳에 있다, 높이 세우다,너무 강하다),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음이라(야다: 알다,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알아차리다,인정하다,밝히,확실히,정녕,이해하다,알아주다,분별하다,분별할 수 있다

발견하다,가까운 친구,느끼다,친척,탐지하다,깨우침을 받다,지식을 갖다,학식있다,깨닫다,존경하다,능한, 보이다,확신하다,동침,깨달음).

시9115. 그가 내 위에서 외치노니(카라: 부르다,외치다,언급하다, 드러내다,이름을 짓다),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라, 내가 고난(짜라:죔,고통,경쟁자,대적자,역경,고뇌,비탄,고난) 중에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그를 구출하고(할라츠:바삐 벗다, 떠나다,구출하다,싸우기 위해 준비하다,제공하다,강화하다,무장하다풀다,치우다,준비된), 그를 영화롭게 할(카바드:무겁다,짐이 되는,존경할만한,영광,영화롭게 하다,영광이 되다,영화롭다) 것이니라,

시9116. 장수(長壽)로써 내가 그를 만족시킬 것이며, 그에게 나의 구원(예슈아:구원받은 어떤 것,구원,도움,승리,번성,구출,건강,구원하다)을 보여줄 것이니라.

2.영과 육의 분리

"우리몸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제 몸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지, 진짜 저는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에서 내려 그 자동차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 누워있는데, 그는 정말 내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누운 제 몸은 단지 제 텐트, 장막, 육신의 장막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진짜 나입니다."

3. 사람의 몸은 집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집인 몸에 거할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은 영이고 다만 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가 우리의 몸에 거할 수는 있으나, 거듭난 사람의 영안에는 거할 수 없습니다.

◇ 땅에 있는 장막집

Ω고후0501. 이는 만약 이 장막의 우리 지상의 집이 분해되면, 하나님의 건축물(오이코도메:건축,건축물,확정,건물,교회,짖다,세우다) 곧, 손들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짐을 우리가 앎이라.

고후0502. 이는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심히 바라면서[에피포데오:사랑에 빠지다,갖기를 소원하다,(열심으로,심히)원하다,(대단히)갈망하다,절실히 바라다], 우리가 이 집에서 신음함이라.

고후0503. 만약 옷 입혀지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벌거벗겨져 발견되지 않느니라.

고후0504.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이 지워져서(바레오:내리누르다,짐을 지다,책임을 맡다,무겁게 하다,누르다) 신음함이니, 우리가 옷이 벗겨지려 함이 아니고, 입혀지려 함이라, 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Ω고전1554. 그렇게 썩기 쉬운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었을 때, 또 죽을 수 밖에 없는 이것이 불사(아다나씨아)를 입었을 때, 그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립(成立)되노니 곧, 승리(니코스:정복,승리)가운데서 사망이 삼켜지느니라.

◇ 겉사람

Ω고후0416.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생기를 잃지(엑카케오: 나쁘게 되다,약하게 되다,실망시키다,활기를 잃다,피곤하다) 않느니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할지라도,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새로워지느니라.

◇ 집안에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

벧전0303. 너희의 꾸밈으로 하여금 머리를 땋고, 금을 착용하거나 또는 옷의 장식을 다는 것의 겉의 꾸밈이 되게 하지 말라,

벧전0304. 대신에 너희의 꾸밈으로 하여금, 썩지 않는 것으로, 온화(유순)하고 평온한 영(靈)의 바로 그 장신구로, 마음의 숨겨진 사람이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단한 값이 나가느니라.

◇ 그것 it

고전0927. 대신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또 그것을 복종에로 데려가느니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난파당한(아도키모스: 공인되지 않은,거절된,가치없는,신에게 버림받은,시험에 합격치 못한) 자(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4. 우리의 수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시9010. 우리의 햇수들의 날들이 육십년하고 십년이나이다, 그리고 만일 힘(게부라:힘,용맹,승리,지배,세력,힘센,권력,강함) 때문에 그것들이 팔십년이더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힘(로하브:자랑,힘)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은 곧 잘려지며, 또 우리는 날아가(우프: 덮다,날다,실신하다,휘두르다,녹초가 되다,기진하다,내빼다,날아가다,두다,빛을 발하다,피로한) 사라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상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0303. 인자하심(헤쎄드: 인자함,경건,은총,선행,친절,인애,연민,자비,긍휼, 혈약에 의거한 은총)과 신실하심(에메트:안정성,확실함,진리,진실,확실한,옳은,참된,신실한,진실로)으로 하여금 너를 저버리게 허용하지 말라, 그것들을 네 목 둘레에 묶으라, 그것들을 네 마음판 위에 쓰라.

잠0304.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호의와 훌륭한 분별력(세켈:이지력,성공,분별,지식,책략,신중함,지각,이해력,지혜,현명한)을 발견하느니라.

잠0305.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네 자신의 이해력(비나:명철,지식,의미,이해,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잠0306. 네 모든 길들에서 그분을 시인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길들을 곧게 이끄시느니라(야솨르:곧다,평탄하다,옳은,바르게 하다,곧게하다,옳다,올바르게 가다,곧게 인도하다,똑바로 행하다,좌우로 치우치지 않다,올바르다)

잠0307. 네 자신의 눈들 안에서 지혜로워지지 말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악으로부터 떠나라.

잠0308. 그것이 네 배꼽(쇼르:줄,꼬인 것,특히 배꼽 줄,힘의 중추로서의 탯줄,배꼽)에 건강이, 네 뼈들에게 골수(쉬쿠이:마실 것,수분,원기회복,음료,골수)가 되느니라.

출2325.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러면 그가 네 빵과 네 물을 축복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병(마흘레: 병듬,병,약함)을 치울(쑤르: 쫓아버리다,떠나다,피하다,떼어두다,잡아찢다,치우다,내려놓다,반역하다,제거하다,취하다,벗다,외면하다,물러나다,없이~되다) 것이니라.

출2326. 네 땅에서 아무도 그들의 어린 것을 내던지지 (솨콜:유산하다,낙태하다,사별하다,자녀를 여의다,자녀를 못낳다,조산하다,자식이 없다,빼앗다,파괴하다,기대하다,자식을 잃다,자식을 빼앗기다) 않으며, 또한 불임하지[아카르: 불임(不姙)의] 않느니라, 네 날들의 수(數)를 내가 가득 채울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도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기쁨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벗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벗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딤후0406. 이는 내가 이제 바쳐질[스펜도:관제로 부어드리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제물로써) 봉헌하다,헌신하다,소비하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나의 떠남의 시간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딤후0407. 내가 훌륭한 시합[아곤:(인도되어진) 회합의 장소,거기서 개최된 경기,시합,노력,걱정,투쟁,논쟁,싸움]을 싸워(아고니조마이:투쟁하다,상을 위해 싸우다,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열심히 애쓰다, 힘쓰다,시합) 왔으며, 내가 나의 주로(走路)를 마쳤느니라(텔레오:완전히 하다,완수하다,결론짓다,청산하다,실행하다,끝마치다,성취하다,건너다,지불하다), 내가 믿음을 지켜 왔느니라.

5. 이 땅에서의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6.육신 먹이기

1)거듭나지 못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신음함

우리가 이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육신과 늘 겨루어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Ω롬0822. 이는 지금까지 온 피조물이 괴로움 가운데서 함께 신음하고 산고(産苦)를 겪는 것을 우리가 앎이라.

롬0823.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양자삼아짐 즉 우리 몸의 되찾으심[아폴뤼트로씨스: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을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우리가 변화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아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오직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우리는 육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1547. 첫번째 남자는 흙(게: 흙,지방,지구의,나라,세상,땅,육지)에 속하여, 흙 같거니와(코이코스:먼지 낀,더러운,흙같은,토질의,휽에 속한,흙으로 된), 두번째 남자는 천국으로부터의 주(主)님이시니라

고전1548. 흙 같은 자가 그러하듯이, 흙 같은 자들이 또한 그러하고, 또 하늘의(에푸라니오스:하늘 위,천체의,하늘의,높은) 자가 그러하듯이, 하늘의 자들이 또한 그러하니라.

고전1549. 그리고 우리가 흙 같은 자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듯이(포레오:짐을 지다,간직하고 있다,입다,쓰다), 우리가 하늘의 자의 형상을 또한 지니느니라.

Ω고전1550. 한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육신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물려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썩음(프도라: 몰락,황폐,부패,멸망)이 '썩지 않음(아프다르씨아:썩지 않음,영원한 존재,순수,불멸)'을 물려받지도 못하느니라.

Ω고전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가지 신비(뮈스테리온: 비밀, 신비)를 보여주노니, 우리가 모두 잠 들지 않고, 대신에 마지막 나팔 때에, 순간에 곧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형되느니라(알랏쏘:다르게 만들다,변경하다,변하다).

고전1552. 이는 나팔이 울리며,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게 일으켜지며, 또 우리가 변형됨이라.

고전1553. 이는 썩기 쉬운 이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아프다르씨아:썩지 않음,영원한 존재,순수,불멸)'을 입으며, 또 죽을 수 밖에 없는 이것이 반드시 불사(아다나씨아:죽음이 없는,불멸,불사)를 입음이라.

Ω고전1554. 그렇게 썩기 쉬운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었을 때, 또 죽을 수 밖에 없는 이것이 불사(아다나씨아)를 입었을 때, 그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립(成立)되노니 곧, 승리(니코스:정복,승리)가운데서 사망이 삼켜지느니라.

고전1555. 오, 사망아, 네 독침(켄트론:점,중심,일침,자극,독,막대기)이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니코스:정복,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Ω고전1556. 사망의 독침(毒針)은 죄(빗나감)며, 그리고 죄의 능력(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은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이니라

고전155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니코스:정복,승리)를 주시느니라.

Ω고전1558. 그러므로 내 사랑 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노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 일에서 풍성히 하면서. 너희는 확고부동하게 있고, 동요하지 말라.

3)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당신의 그릇(몸)을 더럽게 하지 마십시요.

거룩하게 하십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경건이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날 한번 경건해지면, 계속 경건해 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당신의 영이 당신의 육신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살전0406. 아무도 범위(한계)를 넘어가지(휘페르바이노:초월하다,너무 뻗다,분수를 넘다)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형제에게서 사취하지 않는 것이라③. 이는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였던 대로, 주(主)는 그러한 모든 것의 보복자이심이라.

살전0407.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결함에로가 아니고, 거룩함[하기아스모스:하기아조(성별하다)에서 유래,정화,청결한 상태,깨끗이 하는 사람,거룩,성화,깨끗]에로 부르셨음이라.

살전0408. 그러므로 멸시하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또한 주셨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4)성경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몸에 다음의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 육신의 역사

사실(事實),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전장터는 마귀와의 전장이 아니고, 육신과 영사이의 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육신을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마귀와도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문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5)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이삭같이 바치라

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예배(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 (복원, 아나카이노시스:재생,회복,갱신,갱생)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살펴보다, 승인 찬성하다) 수 있을 것이니라,

바울은 거듭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6) 몸의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박아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나, 당신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Ω빌0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청종해 왔던 것과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는 훨씬 더 무서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쏘테리아:구원,안전,건강)을 성취하라(완전히 마치라, 카테르가조마이:완전히 일하다,완수하다,마치다,수행하다,성취하다)

빌0213. 이는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서 비롯되어, 하려고 하며(델로: 결정하다,선택,선호하다,원하다,기뻐하다,기울어지다,하려고 하다) 또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믿는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쁜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사단의 통치하에 있지는 않지만, 마귀는 믿는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쁜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유혹합니다.

Ω갈0516.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피뒤미아:동경,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욕망,갈망)을 충족시키지(텔레오:완전히 하다,완수하다,결론짓다,청산하다,실행하다,끝마치다,성취하다,건너다,지불하다)않느니라.

갈0517.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갈망하고(에피뒤메오: 마음을 두다,갈망하다,탐하다,바라다,기꺼이 ~하다),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갈망함이라. 그리고 이들은 서로간에 반대니라(용납치 않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갈0518.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 받으면, 너희는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 아래에 있지 않느니라.

Ω갈0519. 한데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니, 그것은 이것들이니라, 간음(모이케이아:간음)과 행음(포르네이아: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매음,우상숭배,음란,간음,음행)과 불결(아카다르씨아:불순,불결)과 외설적임(아쎌게이아:방탕,악덕,부정한,음란,방종)과

갈0520. 우상 숭배와 마법(퐈르마케이아: 약물,약학,마법)과 증오과 불화(에리스:다툼,언쟁,논쟁,투쟁,불일치)와 경쟁(젤로스:열,열심,열정,질투,적,악,경쟁,시기,열렬한 마음,분개,질시)들과 분냄과 다툼(에리데이아:음모,당쟁,다툼,쟁투)과 선동(디코스타씨아: 불화,알력,구분,분리,선동)들과 이설(異說)(하이레씨스:선택,당파,분리,이단,편당)들과

갈0521. 시기함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에 대해 내가 지난 시절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를 미리 말하노니 곧,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프랏쏘:행하다,(계속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수행하다,실행하다,성취하다,완수하다,(세금을)징수하다,(개인적으로)요금을 내다]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허락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통하여 나쁜 일을 하도록 역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격려하는 것을 하든지, 마귀가 격려하는 것을 하든지 내가 선택하여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나쁜 일들을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돌릴 수 없듯이, 모든 선한 일도 성령님께 돌릴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Ω롬0605. 이는, 이를 알기에 곧, 앞으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도록 죄의 몸(본체, 本體)이 부숴지게 하시려고, 그분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알기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망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됨이라.

롬0607. 이는 죽어 있는 그는 죄로부터 해방됨[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의롭다고 간주하다,흠이 없다고 여기다(보이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보이다,간주하다,자유하다,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의롭게 되다/ 히브리어 짜다크(도덕적이나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깨끗케 하다,정결하다,의롭다,의롭게 하다,의를 행하다,의로운 상태가 되다)에 상응]이라,

Ω롬0721. 그렇다면 내가 한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를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善)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롬0722. 이는 내가 속사람을 좇아서는 하나님의 법규(노모스) 안에서 기뻐함이라.

롬0723. 그러나, 내 마음[누스:지능,(하나님 또는 인간의 사고,감각,또는 의지에 있어서)마음,의미,이해,이해력]의 법규(노모스)를 거슬러 싸우며①,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규에로 나를 사로잡아 데려가는 (아이크말로티조:포로로 하다,사로잡아 데려가다,포로로 데려오다,유인하다)② 내 지체들 안의 또 다른 법규를 내가 보느니라.

Ω골0305.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포르네이아: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매음,우상숭배,음란,간음,음행), 깨끗치 못함, 무절제한 성정(性情) (파도스:고난,정욕,색욕,지나친 사람), 악한 감각적인 정욕(에피뒤미아:동경,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욕망,갈망)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Ω갈0516.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피뒤미아:동경,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욕망,갈망)을 충족시키지(텔레오:완전히 하다,완수하다,결론짓다,청산하다,실행하다,끝마치다,성취하다,건너다,지불하다)않느니라.

갈0517.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갈망하고(에피뒤메오: 마음을 두다,갈망하다,탐하다,바라다,기꺼이 ~하다),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갈망함이라. 그리고 이들은 서로간에 반대니라(용납치 않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갈0518.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 받으면, 너희는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 아래에 있지 않느니라.

육신을 못박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일은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임시처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석음식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천원짜리 싸구려 세일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빠른 묘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당신이 마귀와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언제나 똑같이 제값을 지불해야 합니다.당신이 과중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식욕을 줄이고, 육신을 부인하는 값을 제대로 정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7) 영을 좇아 행하라/영이 몸을 다스리게 하라

Ω롬0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오페일레테스:소유주,채무자,게으른,하나님에 대한 범죄자,빚진자,가진자, 죄인)들이나, 육신을 좇아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자들은 아니니라.

롬0813. 이는 만약 너희가 육신을 좇아 살면, 너희는 죽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다나토오: 죽이다,죽게 되다,죽음에 처하다,고행하다), 너희는 사느니라.

골0110. 이는, 온갖 인내와①, 기쁨과 함께하는 오래 참음②에까지(에이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따라, 모든 세력(힘)으로 강하게 되어, 낱낱의 선한 일에서 열매를 내며①, 하나님을 인식함(에피그노씨스:인식,완전 식별,인정,승인)에서 불어나며②, 빛 가운데서 성도(분리된 자)들의 세습물의 동참자들이 되기에 적합하도록(히카노오: 할 수 있게 하다,자격을 갖추다,충족시키게 하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③, 너희가 온갖 기쁜 것에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주께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기업의 부분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0113.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위임 받은 권능, 엑수시아:능력,특권,힘,재능,지배,영향력)으로부터 건저내셨으며(뤼오마이:돌진하다,끌어내다,구출하다,구원하다,구하다,건저내다), 또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구약: 말쿠트, 신약: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메디스테미:운반하다,멀리 옮기다,면직시키다,바꾸다,유혹하다,내놓다,번역하다,돌리다).

Ω고후0416.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생기를 잃지(엑카케오: 나쁘게 되다,약하게 되다,실망시키다,활기를 잃다,피곤하다) 않느니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할지라도,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새로워지느니라.

벧전0303. 너희의 꾸밈으로 하여금 머리를 땋고, 금을 착용하거나 또는 옷의 장식을 다는 것의 겉의 꾸밈이 되게 하지 말라,

벧전0304. 대신에 너희의 꾸밈으로 하여금, 썩지 않는 것으로, 온화(유순)하고 평온한 영(靈)의 바로 그 장신구로, 마음의 숨겨진 사람이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단한 값이 나가느니라.

바울조차도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게 하기위해 자기 몸을 쳐야 했습니다.

고전0926.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달리되, 분명치 않게가 아니며, 그렇게 내가 권투하되(퓌크튜오: 권투시합), 허공을 연속 치는 자와 같지 않느니라,

고전0927. 대신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또 그것을 복종에로 데려가느니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난파당한(아도키모스: 공인되지 않은,거절된,가치없는,신에게 버림받은,시험에 합격치 못한) 자(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만약에 당신이 보행자, 즉 여러분 내부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지쳐있다면 말(horse), 즉 외부로부터 오는 더 큰 시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당신은 또한 새로운 악한 영을 맞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삭과 같이 또 이삭이 상징했던 기꺼이 자신을 제단에 내어드린 그 분(예수님?)과 같이 됨으로써 당신의 영혼속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특성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신령한 축복의 자손이었지만 이삭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로마서 12장 1절 >

8)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성경은 육신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직접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단의 탓이라고 돌리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로부터 당하는 일보다,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타락한 육신은 그 육신만의 강한 욕망과 그만의 취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품행(아나스트로페:품행,처신,행위,대화)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기만적인(아파네:현혹,기만적,속일 수 있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어입니다.

목적어가 뭔가요? 사탄이 아니고 옛사람 곧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악한 영을 다루는게 아니고, 당신의 몸을 다루는 것입니다.

Ω롬0124.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보이도록(아티마조:불명예스럽게 대하다,얕보다,악하게 대하다,경멸하다,명예를 손상시키다,부끄럽게 하다,부끄럽게 대하다), 그들 자신의 마음들의 정욕(에피뒤미아:동경,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욕망,갈망)들을 통해 그들을 불결함(아카다르씨아:불순,불결)에로 넘겨주셨느니라(파라디도미:항복하다,포기하다,맡기다,보내다,배신하다,생기다,던지다,위임하다,인도하다,넘겨주다,모험하다,투옥하다)

롬01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알레데이아:알레데스(참된,진실한)에서 유래,진리,참되다,참되게,진실성,사실]를 거짓말로 바꾸었으며, 또 영원히 송축 받으시는(율로게토스:찬양 받을 만한,축복 받은,찬양 받은) (아멘!)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Ω롬0126. 이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한(아티미아:불명예,무례,망신,굴욕,수치,부도덕) 정욕(파도스:고난,정욕,색욕,지나친 사람,사람에게 닥치는 것)에로 넘겨주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부인들 조차도 본래의 용도[퓌씨스: (반복이나 확장에 의한) 성장,자연적 산출,종(種),종류(種類),타고난 성향,성질,본래의 용도,본성,인류]를 그 용도[퓌씨스:(반복이나 확장에 의한)성장,자연적 산출,종(種),종류(種類),타고난 성향,

성질,본래의 용도,본성,인류]에 거스르는[파라:가까운,곁으로부터,근처에,곁에,에 근사하게,너머에,반대편에,위에,대하여,중에,전에,안에,에 가까이,목전에]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롬0127.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들 또한 부인의 본래의 용도를 남겨두고[아피에미:보내다,울부짖다,용서하다,버리다,곁에 두다,떠나다,~하게 하다(혼자 있다,가다,갖다),따로 내놓다(보내다),면제하다,포기하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어울리지 않는(아스케모쉬네:외설,외음부,부끄러움,보기 사나운 일) 것을 행하면서[카테르가조마이:완전히 일하다,완수하다,마치다,만들다,일으키다,(행위를)행하다,수행하다,성취하다]①, 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데이:(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한다,~해야 한다,마주치다,(필요함에)틀림없다,필요하다] 그들의 과실 [플라네:(대상이)부정,(주체가 정통이나 신앙에서)이탈,기만,미혹,죄,배회,방황]의 보응(안티미스디아: 보상,상응,보응,상급)을 그들 자신들 안에서 받으면서②, 그들의 정욕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 불타 올랐느니라,

육신의 정욕은 "정욕의 영"과는 다른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은 정욕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Ω롬0128.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인식(에피그노씨스:인식,완전 식별,인정,승인) 안에 하나님을 간직하기를(에코:붑잡다,소유하다,간직하다,동반하다,보관하다) 좋아하지 않았던 바로 그대로, 온갖 법적 불결(不潔)과 음행(포르네이아: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매음,우상숭배,음란,간음,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해악(카키아:악함,비행,원한,고난,악,해악,무가치,허약)으로 채워지고, 시샘과 살인과 논쟁(에리스:다툼,언쟁,논쟁,투쟁,

불일치)과 속임수와 악의(카코에데이아:나쁜 습관,유해함,비행)로 가득해져서, 알맞지(카데코:도달하다,~이 되다,편리하다,적합하다)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아도키모스: 공인되지 않은,거절된,가치없는,신에게 버림받은,시험에 합격치 못한) 정신에로 넘겨주셨느니라,

당신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을, 당신이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의 임시집인 당신의 육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